

8/7/16

설교 제목: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생각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전도서 7:13,14

(전 7: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절관주** 전 1:15

(전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유대 경전인 미드리쉬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장이를 불러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하면서 반지 안쪽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승승장구 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도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세공장이는 반지는 어려움없이 만들었지만 반지에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지혜가 출중하다고 소문 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솔로몬 왕자는 나중에 그것을 본 아버지 다윗 왕을 탄복시킨 한 글귀를 추천했습니다.

솔로몬이 추천한 글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shall pass away too)’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성공하여 잘 나갈 때가 있고 실패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뜻대로 잘 될 때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 썩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희로애락을 겪으며 삽니다.

현재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요, 현재 죽을 수고 있다고 영원히 죽을 수며 살란 법도 없습니다.

젖은 자리가 마른 자리 되고 마른 자리가 젖은 자리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즉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즉
곤고할 때는 사탄이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글인 본문을 보십시오.

(전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모두를 우리네 인생에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 승리 환희 행복 등의 좋은 일 기쁜 일도 주시지만
실패 고난 불행 슬픔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 74: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도 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빛도 어두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형통과 기쁨만을 원하지만 우리네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실패도 고난도 슬픔도 어김없이 찾아 옵니다.

성공한 듯하면 실패가 찾아오고 그래서 불행하다 싶으면 행복이 다가 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의 밀물과 썰물을 겪으며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네 인생에 이 두가지를 병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종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너무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한 곳, 천국입니다.

형통할 때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은 누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시간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생각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본문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되돌아 보아라(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왜 이런 곤고한 날이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다음에는 이런 일을 반복하여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돌이킬 수 있는지 지혜를 내 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포기하고 절망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곤고하다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아울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사람은 없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 7:13) 하나님이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진대 곤고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일단 견디어 내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억울하게 고난 받은 사람 옅이 나옵니다.

옅은 양 7 천 마리, 낙타 3 천 마리, 소 5 백 마리, 나귀 5 백 마리를 소유한 당대 거부였습니다.

자식도 열 남매를 두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자식들과 가지고 있던 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욕을 보고 친구들은 손가락질 했고 아내 조차 욕을 저주하며 떠나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곤고함을 겪는 중에도 욕은 한번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2)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욕에게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욥 42:10)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 42: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 42:12)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거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2. 곤고한 날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 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해 놓으신 원래의 그릇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어지는 것입니다.

노사연씨의 노랫 말과 같이 우리가 익어 가는 것입니다.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벧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100 여년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단련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 받은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괜한 헛 고생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이 고난이 헛 고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을 달게 받으십시오.

단련이 끝난 후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3.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남북 전쟁시 무명의 한 흑인 병사 일기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일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 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되
은연중 나는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 되었노라.

나는 만인 중에 서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이 무명 병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